



THE BRIDGE COMPANY

토마스 제헤트마이어 & 프랑스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

**Thomas Zehetmair &
ORCHESTRE
NATIONAL 
D'Auvergne**

CLERMONT-FERRAND

ORCHESTRE
NATIONAL *1793*
D'AUVERGNE
CLERMONT-FERRAND

 THE BRIDGE COMPANY

ORCHESTRE NATIONAL D'AUVERGNE & THOMAS ZEHETMAIR



프랑스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 & 토마스 체헤트마이어

W.A. Mozart | J.S. Bach | I. Xenakis | J. Brahms

2022. 11. 12^{SAT} 5:00^{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후원



2018
2019
2020
2021

La musique assure une connexion émotionnelle et renforce la cohésion des sociétés humaines. Notre mission est de permettre à chacun de se sentir mieux, grâce à la musique, et ainsi vivre mieux avec les autres.

음악은 정서적 연결을 제공하고 인간 사회의 결속을 강화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음악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Orchestre national d'Auvergne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현악삼중주, 쿨헬번호 부속 66(562e),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토마스 제헤트마이어의 편곡
Fragment KV. Anhang 66(562e),
completed for String Orchestra by Thomas Zehetmair

🕒 6'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ohann Sebastian Bach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가단조, 작품번호 1041

Violin Concerto No.1 in A minor, BWV 1041

🕒 15'

1악장 적당히 빠르게
Allegro moderato

2악장 천천히
Andante

3악장 매우빠르게
Allegro assai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마장조, 작품번호 1042

Violin Concerto No.2 in E major, BWV 1042

🕒 19'

1악장 빠르게
Allegro

2악장 매우 느리게
Adagio

3악장 매우 빠르게
Allegro assai

I n t e r m i s s i o n

이안니스 크세나키스

Iannis Xenakis

아로우라

Aroura

⌚ 11'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현악 오중주 제2번 사장조, 작품번호 111

String Quintet No.2 in G major, Op.111

⌚ 29'

1악장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생기있게
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

2악장 매우 느리게
Adagio

3악장 조금 빠르게
Un poco allegretto

4악장 아주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Vivace ma non troppo presto

* 전체 프로그램은 현악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연주됩니다. * The entire program is performed in the string orchestra version.

*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The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Conductor & Violinist - Thomas Zehetmair

지휘&바이올린 - 토마스 체헤트마이어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로 인정받은 토마스 체헤트마이어는 21/22 시즌부터 프랑스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 중이며, 바로크 작품에서부터 현대작품까지 폭 넓은 레퍼토리로 솔리스트 뿐 아니라 지휘자 및 실내악 연주자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실내악 연주자로서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의 상임지휘자, 세인트 폴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예술 파트너 그리고 노던 실포니아의 명예 지휘자를 역임하였다.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 보스턴 심포니, 시애틀 심포니,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진행하였으며, 1994년에 체헤트마이어 콰르텟을 결성한 후 지금까지 활발한 실내악 연주도 함께 이어오고 있다.

또한 그는 세계 주요 무대에서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로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그의 음반 업적들은 수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 녹음한 바흐의 6개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는 <뉴욕 타임즈>에서 “2019년 최고의 클래식 음반 25선”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019년 독일의 <디 차이트>와 2020년 <오푸스 클래식 어워드>의 베스트 독주 음반으로도 선정되었다.

The facets of the great musician are multiple: he performs as a soloist, chamber musician, conductor and tackles a wide repertoire, from Baroque masterpieces to contemporary creations.

He i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Austrian conductor, violinist and chamber musician, principal conductor of the Stuttgart Chamber Orchestra (D), Musikkollegium Winterthur (CH), artistic partner of the St Paul Chamber Orchestra (USA) and honorary conductor of the Northern Sinfonia (GB).

He appears on major international stages as a conductor and soloist and pursues a critically acclaimed recording career. His latest recording of Bach's six violin sonatas and partitas was chosen by The New York Times as "The 25 Best Classical Music Tracks of 2019". He is also a 2019 favorite of Die Zeit magazine and winner of the 2020 Opus Klassik for best solo recording.



Orchestre national d'Auvergne

프랑스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

———— 프랑스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는 절대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며 특색있는 음색과 강렬한 사운드로 수많은 프랑스 오케스트라 사이에서 주목을 받아오고 있으며, 섬세하고 도전적인 프로그래밍으로 프랑스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인지도를 얻었다.

1981년 창단된 프랑스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는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영향에 대한 확고한 열망을 가지고 마시프 중앙의 중심부에서 시작되었다. 창단 이후, 시민 오케스트라로서 대중에게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 힘써왔으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19년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로 승격하였다.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는 예술 프로젝트로 수많은 투어와 음반을 발매함으로써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2019년 1월,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는 프랑스 오케스트라 최초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100% 디지털 레이블인 OnA Live를 설립하였으며, 지금까지 86개국에서 9만 5천명 이상이 이 디지털 레이블을 통해 감상하였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는 50개 이상의 앨범을 녹음하였다.

음악감독인 장-자크 캄토로프와 아리 반 비크 그리고 로베르토 포레스 베제스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의 모범적인 응집력과 단결력을 보여주는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는 2021-2022 시즌부터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토마스 체헛타이어가 상임지휘자를 맡아 함께 하고 있다.

———— From its creation, the Orchester national d'Auvergne has distinguished itself by the search for a sound, a force, an absolute perfection which has always characterized it among the French orchestral phalanxes. Sensitive and adventurous, his programming in repertoires spanning six centuries has made him famous on the French and international scene and can be found in his recordings.

It was in 1981 that this permanent chamber orchestra was born in the heart of the Massif Central, with from the outset a clear desire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fluence. A citizen orchestra, since its creation it has carried out actions to disseminate music and raise awareness among the public: the label "National Orchestra in the region" which it obtained in 2019 is just recognition of this.

It nourishes an artistic project anchored on its territory and open to the world, encouraging the realization of numerous tours and a renewed discography. In January 2019, the Orchester national d'Auvergne was the first French orchestra to create its own 100% digital label, freely accessible via streaming, OnA Live. To date, it has more than 95,000 plays in 86 countries. For forty years, the Orchestra has thus recorded more than 50 albums.

It owes its exemplary unity and cohesion to the musical directions of Jean-Jacques Kantorow, Arie van Beek and Roberto Forés Veses. Violinist and conductor Thomas Zehetmair has been its principal conductor since the 2021-2022 season.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756-1791)

Wolfgang Amadeus Mozart

현악삼중주, 쿨헬번호 부속 66(562e),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토마스 체헤트마이어의 편곡

Fragment KV. Anhang 66 (562e), completed for String Orchestra by Thomas Zehetmair

현악 삼중주를 위한 모차르트의 이 단편이 언제 완성되었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1790년이나 1791년, 그의 사망이 머지않은 시점이라는 정도로 추측될 뿐이다. 아마 쿨헬번호 563번으로 정리된 같은 편성의 <디베르티멘토>의 완성 시점과 이 단편이 관련하였을 것이다.

모차르트의 말년을 살펴보면 어딘가 조금 기이한 기분이 든다. 그의 마지막 세 교향곡 완성 즈음부터 살펴보더라도, 1789년에는 <코지 판 투테>, 이후로는 <아베 베룸 코르푸스>나 <마술피리> 등의 걸작들이 쏟아져 나온 반면 동시에, 그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아버지 레오폴트의 죽음, 아내 콘스탄체의 발병, 어린 자식들의 죽음, 생활고와 빛의 연속 등 기구한 이면으로 점철되어 있다. 후기 작품은 점점 내용적으로 무거워지며, 반응계의 사용이 잦아지는 등 어두운 구석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한편 바이올린 파트가 100번째, 비올라가 98번째, 첼로가 97번째 마디까지만 쓰여진 이 미완성의 삼중주 단편은 그다지 특별한 구석은 없다. 그의 다른 말년의 작품들과 비교하여서는(적어도 단편의 쓰여진 곳까지 보자면) 딱히 어두운 구석이 두드러지거나 무겁지도 않다. 그보다는 원숙한 기술과 내용의 전형적인 모차르트이다. 이 때의 '전형적'이라는 단어에는 대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구석이란 없을 테다.

경지에 이른 단순함, 구석구석 빠지지 않는 해학미, 그리고 내용과 장식 사이, 진지함과 즐거움 사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등 '전형적인 모차르트'라는 표현은 어쩌면 그의 작품들에 붙는 최고의 찬사일지 모른다.

이 단편이 제시부까지만 쓰여진 채 남겨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야 어쨌든 이 단편의 뒤로 이어질 소리를 감히 상상해내고 구현하는 일이 가볍거나 쉬울 리 없다. 체헤트마이어(Thomas Zehetmair, 1961~)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 버전은 작년 9월, 제네바에서 스위스 챔버 솔리스초의 연주로 처음 무대에 올려졌다. 사뭇 궁금해진다. 단편 속 모차르트가 모차르트로 남고, 하지만 동시에 미완의 작품이 나름의 완결성을 지니고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1685-1750)

Johann Sebastian Bach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가단조, 작품번호 1041

Violin Concerto No.1 in A minor, BWV1041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마장조, 작품번호 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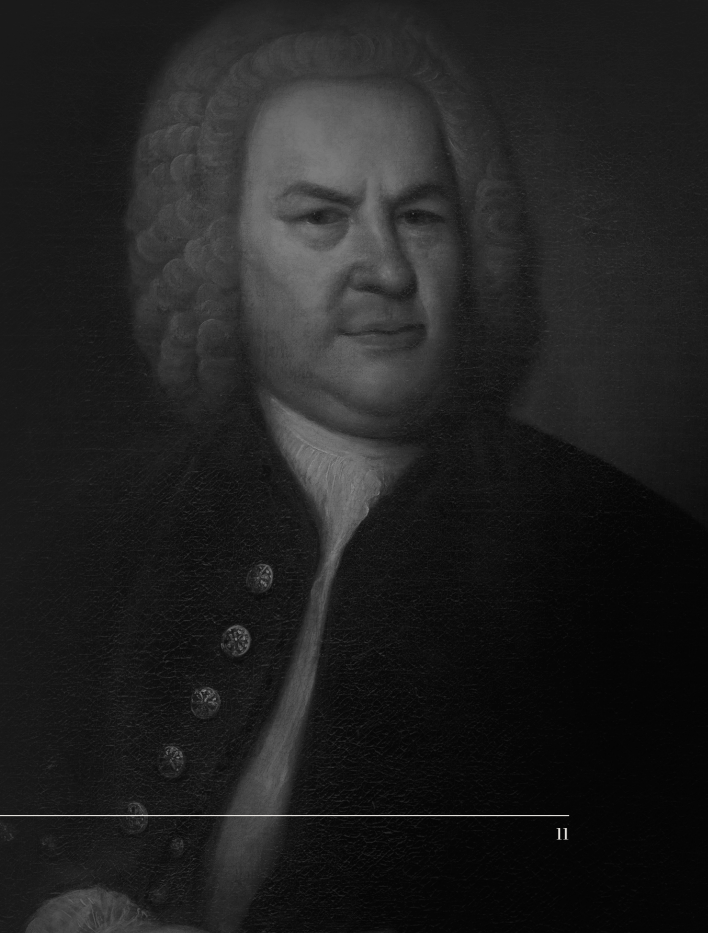
Violin Concerto No.2 in E major, BWV1042

이 두 협주곡의 기원 또한 분명치 못하다. 2번이라 불리는 작품번호 1042는 확실치는 않으나 1718년 즈음 바흐의 쾨텐(Köthen) 시기에 창작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반면, 1번인 가단조 작품번호 1041는 그보다 시기적으로 뒤인 1730년 즈음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학자들 사이에서 주장되기도 한다. 1730년 즈음 바흐는 쾨텐에서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라이프치히(Leipzig)의 콜레기움 무지쿰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었다.

바흐의 이 배경이 불분명한 두 협주곡, 1041과 104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무대에 함께 오른다. 같은 연주자들과 같은 형태로 연이어 연주될 수 있다는 편리함은 차치하고서라도, 각각 A minor(가단조)와 E major(마장조)를 취한 두 협주곡의 병치가 자아내는 멋스러움이 한 몫을 한다. 둘 중 어떤 곡을 앞뒤에 놓는지에 따라 분위기나 서사의 전개가 사뭇 다르나, 두 곡의 조(key)적 연결은 바흐 시절보다도 오늘날 청중의 귀에 더 특별하게 들어온다. 바로크 풍의 소리내기 방식이 주는 특유의 쾌미(快味)와 함께, 서로 상이한 두 조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연이은 연주가 주는 행복감은 조금은 더 빠르고 복잡한 우리 시대에 더 클 것이다. 두 협주곡 모두 바이올린 몸체가 쉬이 진동할 수 있는 조성, 악기의 조율 관습에 따라 태생적으로 취하고 있는 개방현의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조성을 중심으로 하여 쓰여졌다. 바이올린은

높은 현에서부터 E, A, D, G로 조율된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의 작품번호 1043- 그 유명한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은 D minor(라단조)를 취하고 있다.

두 협주곡 각각 세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형적인 빠르고 - 느리고 - 빠른 악장 배치를 따른다.



이안니스 크세나키스 (1922-2001)

Iannis Xenakis

아로우라 *Aroura*

선형문자 B로 쓰여진 미케네 그리스어 “a-ro-u-ra”가 이 단어의 입증 가능한 가장 오래된 형태일 것이다. 원래는 쟁기를 뜻하는 단어이며, 이의 변형인 호메로스 그리스어 “Arura”는 주로 경작지를 일컫는다. 나아가 동시에 땅, 지구, 조국 등의 의미 또한 갖는다. 이 악곡의 제목으로 쓰인 “Arou-ra”는 땅, 지구 정도의 뜻으로 읽혀야 할 것이다. 단약장으로, 1971년에 작곡되었다.

본래 제1바이올린 4대, 제2바이올린 3대, 비올라 2대, 첼로 2대, 더블베이스 1대, 총 12명의 현악 연주자를 위하여 쓰여진 이 곡을 두고 작곡가 자신은 더 큰 규모의 편성으로 연주하여도 좋다고 언급하였다. 글리산도와 클러스터, 미분음, 극단적 다이내믹이나 음색 등이 빚어내는 음향은 아방가르드(avant-garde) 음악에 흔히 활용되는 기술들이다. 하나, 크세나키스를 단순히 전후시대의 아방가르드 작곡가 정도로 소개하기에는 그가 현대 음악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와 관련짓지 않더라도 그의 개인사는 자못 특별하다.

1922년 그리스에서 출생 하였으나 후에 프랑스로 귀화하여 2001년 파리에서 영면에 들었다. 건축을 공부하였으며, 또한 음악에 큰 관심을 가져 평생 놓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 1940년 발발한 그리스-이탈리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때 탱크 폭발에 휘말려 왼쪽 눈을 실명하고 얼굴에는 큰 상처를 입었다. 파리에서는 불법 이민자 신분이었으나 기회를 얻어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 ~ 1965)의 스튜디오에서 함께 작업하기도 하였고, 이 때의 작업물로는

1958년 브뤼셀 엑스포의 <필립스 파빌리온(Philips Pavilion)>이 있다. 1951년에서 1953년까지는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 ~ 1992)의 수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건축적 음향과 수학적 구조, 논리 등의 음악적 요소로 일가를 이룬 후일에는 작품활동과 함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였다.

크세나키스의 악보는 이런 배경 때문인지 몰라도 겹으로 흘깃 보기에 건축설계도면을 닮았다. 말그대로 선들의 연속으로 악보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선들은 연주에서 소리로도 분명히 청취 가능하다. 어떤 선은 굵고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어떤 선은 하위 차원에서 가능지만 복잡하게 주변과 얽히어 면을 이룬다. 청취 가능한 선과 면은 서로 관련하여 구조를 드러내고, 다이내믹과 음색은 음구조체의 질감을 나타낸다. 다분히 수학적이며 구조적이다. 하지만 그의 음악이 오늘날까지 크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 그 곳에 국한하지 않고, 그 구조체가 자아내는 특유의 분위기와 음색이 갖는 매력 때문일 것이다. 포장되지 않은, 파괴적이고 비참한, 공포보다는 참상(慘狀)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소리, 어딘가로 향하기보다는 매순간을 가만히 마주하는 소리.

“인간은 하나이며, 나뉘질 수 없고, 그 자체로 전체이다.
인간은 그의 배를 통해 생각하며 그의 정신을 통해 감각한다.
나는 내게 ‘용어’로서의 음악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신비롭지만, 하지만 무신론적인 금욕주의이다.”

“Man is one, indivisible, and total. He thinks with his belly and feels with his mind.

I would like to propose what, to my mind, covers the ‘term’ music... It is a mystical but atheist asceticism.”

- Iannis Xenakis

요하네스 브람스 (1833-1897)

Johannes Brahms

현악 오중주 제2번 사장조, 작품번호 111

String Quintet No. 2 in G major, Op. 111

종국에 피아노 오중주가 된 브람스의 또 다른 작품이 있으나, 최종 형태로 현악 오중주가 된 것은 그의 작품은 단 두개이다. 바장조의 작품번호 88번과, 오늘 연주되는 사장조, 작품번호 111번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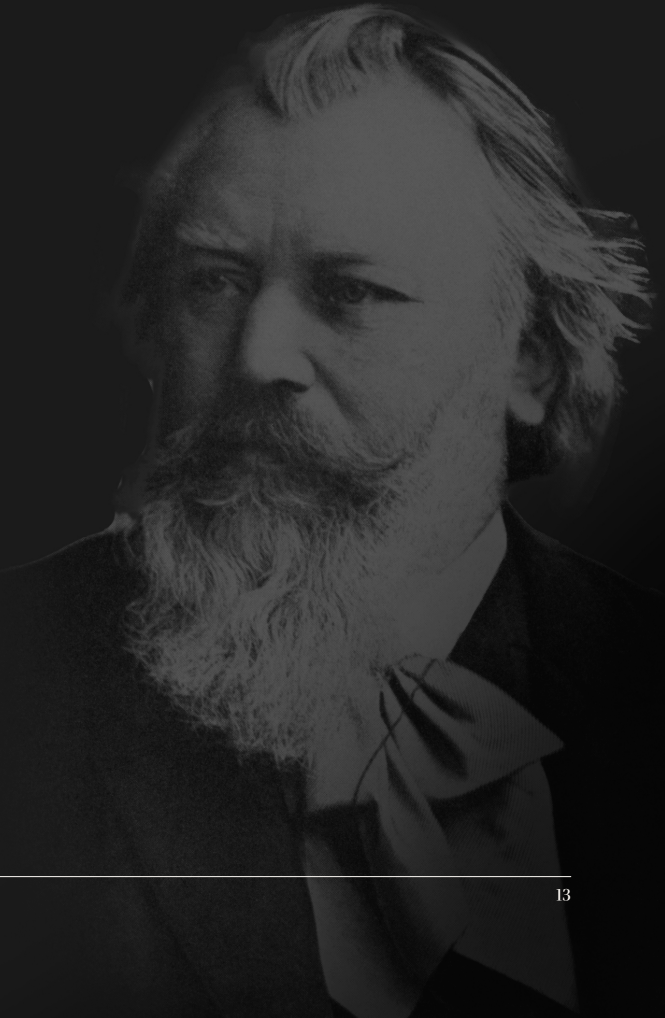
1880년부터 브람스는 몇 번의 여름을 오스트리아의 휴양지 이슐(Ischl)에서 보냈다. 이 오중주가 쓰여진 것은 1890년 이슐에서였다. 57세의 작곡가는 이미 많은 동료들의 타계를 목격한 노년에 접어들었다. 외중에는 절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의 마지막 교향곡은 이미 5년 전에 세상에 나왔다. 1년 후인 1891년에는 그의 말년 걸작 클라리넷 오중주가 작곡될 순서이다. 그 해에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 해가 더 지나면 작품번호 116 - 119에 이르는 자전적 피아노 소품이 세상에 나올 차례이다. 작곡가의 시계는 이제 끝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나는 나 자신과 오랫동안 온갖 것들, 이를테면 교향곡, 실내악 등을 붙잡고 싸워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난 그냥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 평생동안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그냥 착하고 게을러질거다!”

친구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요아힘(Joseph Joachim, 1831 ~ 1907)의 제안에 따라 애처로운 노년의 작곡가는 현악 오중주를 작곡하는 도중이었으나, 조금은 힘에 부쳤던 것 같다. 하지만 머지않

아 작곡가는 보란듯이 그의 두번째이자 생애 마지막 현악 오중주를 내놓는다. 같은 해 11월 11일 비엔나에서 로제 현악 사중주단(Rosé Quartet)에 의해 초연되었다. 성공적인 연주였다.

글 | 백승현(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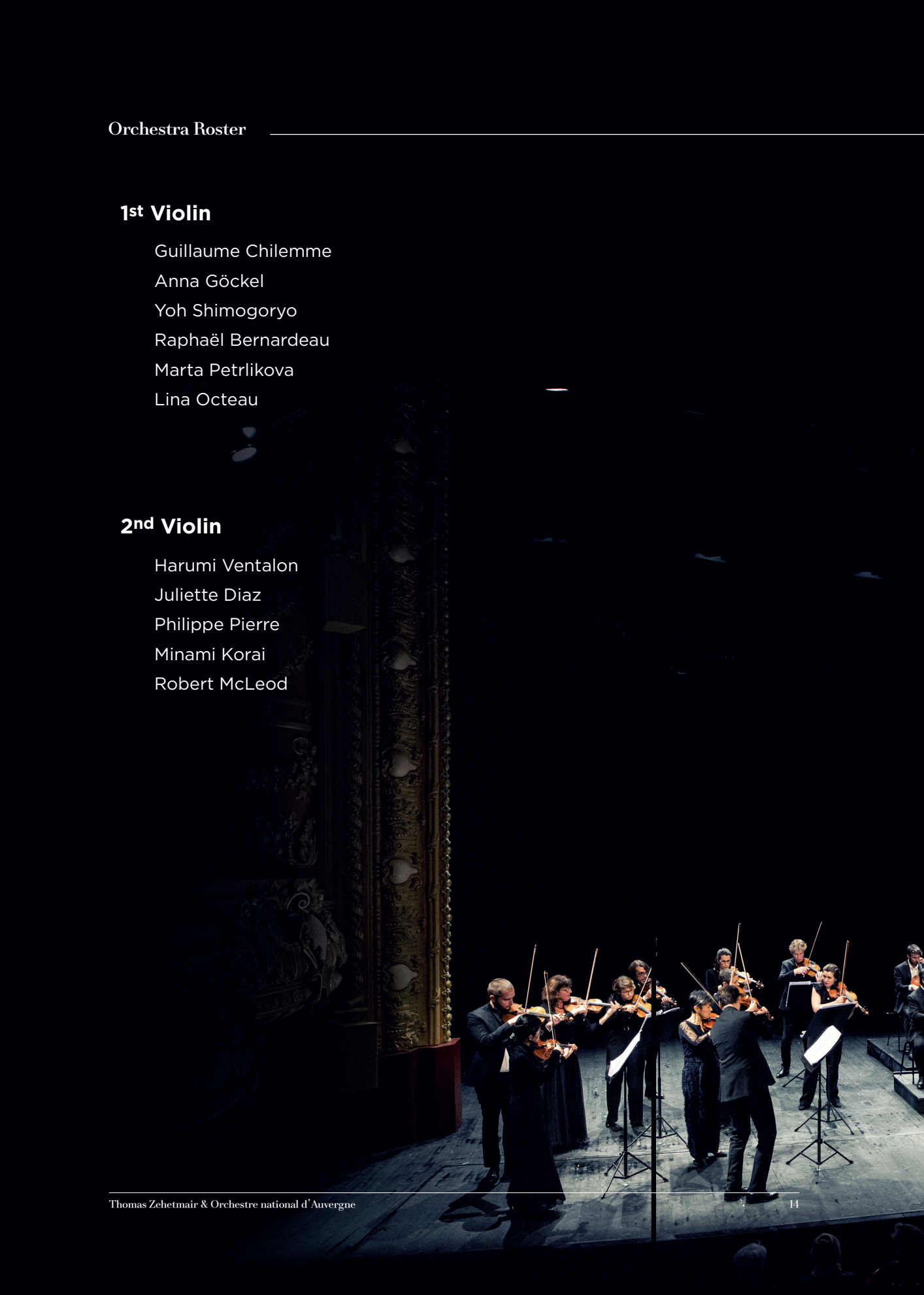


1st Violin

Guillaume Chilemme
Anna Göckel
Yoh Shimogoryo
Raphaël Bernardeau
Marta Petrlikova
Lina Octeau

2nd Violin

Harumi Ventalon
Juliette Diaz
Philippe Pierre
Minami Korai
Robert McLeod



Viola

Cyrille Mercier
Baptiste Vay
Isabelle Hernaiz
Cédric Holweg

Cello

Jean-Marie Trotereau
Takashi Kondo
Éric Moschetta
Quentin Rebuffet

Double Bass

Ricardo Delgado
Laurent Bécamel

Harpichord

Kazuya Gunji



고전부터 현대까지, 현악의 오딧세이 프랑스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

‘국립’의 새 명칭을 단 현악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연주자와 지휘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음악가들이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흔히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연주회에서 두 모습을 모두 보는 것은 더 희귀하며, 두 역할을 모두 훌륭히 해내는 모습은 더더욱 진귀하다. 여차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다’며 질타를 받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토마스 체헤트마이어(1961~)는 이 말에서 자유로운 연주자이다. 2002년에 로열 노던 슐포니아에서 첫 지휘봉을 들어 어서새 20년째 호평 받는 지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9년에 ‘디 차이트’와 2020년에 ‘오푸스 클래식 어워드’는 그의 바이올린 독주 음반에 호평을 보내기도 했다.

세 번의 내한 이후 체헤트마이어가 5년 만에 다시 모차르트를 들고, 자신의 악단과 함께 한국을 찾는다. 함께 하는 프랑스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의 ‘국립’은 2019년에 새로 부여받은 이름. 1981년 창단해 40년 넘게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 악단의 소개는 ‘대중에게 음악을 전달’하는 것으로,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과 잘 어울린다.



Thomas Zehetmair & Orchestre national d'Auvergne

상임지휘자 토마스 체헤트마이어



토마스 체헤트마이어(1961~)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했다. 16살에 바이올리니스트로 데뷔하였고, 1994년 체헤트마이어 콰르텟을 결성한 후 실내악 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2년 지휘를 시작했으며, 2019년 프랑스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부임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성공했는데도 지휘자의 길을 선택했다. 계기가 있었을까?

오래전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결심했다. 더 많은 레퍼토리를 탐구하고 싶어 지휘에 도전했다. 독주자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면 위대한 지휘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처음 음악감독을 맡았던 로열 노던 슐포니아와의 공연 전에도 데이비드 진먼(1936~)의 여름 마스터클래스를 들었다.

지휘자로서 활동하면서도 독주자의 길을 계속 걸었다. 무엇이 계속 독주자의 역할도 해내게 만드는가?

독주를 그만둘 이유가 없었기까. (웃음) 지휘를 하면서 바이올린 연주에 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운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와 지휘자, 두 역할 중 어느 쪽으로 무대에 오르느냐에 따라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다.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방식이 필요하고, 나도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다. 그렇지만 오케스트라와 화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주자 단원들을 이끄는 것이고, 결국 방법이 다르더라도 연주



와 지휘의 목적은 같다.

한 악단의 수장으로

한국에 몇 번 방문했지만,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첫 아시아 투어도.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 한국 관객에게는 음악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열정이 느껴진다. 오베르뉴 오케스트라를 소개하자면, 음악을 대하는 신념과 사랑이 유일무이한 악단이다. 작품을 좋은 수준으로 완성하려는 집중도와 열망이 뛰어나다. 이미 여러 지휘자가 이 악단에 관해 호평을 남겼으며, 스스로 이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코로나가 몰아치던 2021년에 상임지휘자에 임명됐다. 고난이 많았을 것 같다.

세계 모든 오케스트라단이 그랬다. 내가 부임한 첫 주는 통째로 코로나에게 넘겨줘야 했다. 그래도 다행히 이후의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음악 축제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이제는 대부분의 공연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한국도 코로나를 잘 이겨내기를!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는 자체 레이블(OnA)을 통해 여러 음반을 발매했다. 추천해준다면?

한국 청중이 다양한 레퍼토리를 즐기는 걸 안다.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차하리아스(1950~)·지휘자 엔리코 오노프리(1967~)가 참여한 음반, 그리고 내 전임자인 로베르토 포레스 베세스(1970~)가 참여한 음반 전부가 뛰어나다. 오케스트라로 연주한 브루크너의 5중주는 오베르뉴와 내가 공식적으로 처음 함께 한 작품으로, 짙은 오스트리아 색채를 느낄 수 있다.

엄선한 프로그램에 관해

많은 이들이 '체헤트마이어의 모차르트'를 특별하게 여긴다. 모차르트는 당신에게 특별한 작곡가인가?

잘츠부르크 출신으로서 모차르트는 내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말하고 싶지만(웃음), 전 세계 음악가와 관객이 그의 음악에 대한 각자만의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내겐 더 행복하다.

이번 내한에서 연주할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차르트 3중주'의 편곡을 직접 했다. 원곡과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원곡은 정확히 백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의 세 선율은 서서히 사라진다. 모차르트가 이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긴 건 아마도 '레퀴엠'을 의뢰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작곡한 백 마디는 독주자들과 오케스트라로 그대로 연주된다. 서서히 사라지는 미완성 부분 뒤에 모든 오케스트

라가 다시 돌아와서 발전부, 재현부, 코다를 연주하는 구조다. 이전에 모차르트의 다른 작품인 바이올린 협주곡의 카덴차 부분을 써본 경험으로, 이번에는 모든 현악기가 함께하는 카덴차를 완성했다. 작품의 앞쪽에서 모차르트가 던져 준 모티브를 미끼 삼아 다양한 모티브가 함께 얽히는 비르투오소 카덴차이다.

직접 협연하는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BWV1041과 2번 BWV1042는 2악장의 아다지오로 유명하다. 특별히 좋아하는 악장이 있다면?

두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음표를 사랑하지만, 뽀뽀하고 화성적인 진행이 맹렬하게 이어지는 협주곡 1번의 피날레를 좋아한다.

크세나키스의 '아로우라'(Aoura)를 연주하는데, 현대음악을 어려워하는 관객들을 위한 팁을 준다면?

건축가였던 크세나키스(1922~)는 악보를 그래픽적으로 만들었다. 작품에는 노래하는 선율이 부재하고, 가장 거친 소리부터 가장 신비로운 소리를 하나의 넓은 팔레트에 펼쳐놓은 듯하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미학이 우리의 귀를 깨우며, 한 작품에 담긴 다채로운 양식이 계속해서 감상자를 놀라게 한다.

마지막 브람스의 현악 5중주도 어떻게 오케스트라로 연주될지 궁금하다.

일단 모든 음은 브람스의 원본을 따랐지만, 베이스 부분은 오케스트라의 베이스 단원인 로랑 베카멜(Laurent Bécamel)이, 바이올린 독주 부분은 내가 결정하였다. 여러 음악학자는 이 작품에 사용된 소재가 끝내 작곡되지 못한 그의 교향곡 5번의 소재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내악에 교향곡의 성격이 담겼기에 우리가 연주하기에 아주 안정맞춤인 작품이다.

글 이명정 기자
월간 <객석> 11월 호 발행

CHARLES RICHARD-HAMELIN

P I A N O R E C I T A L



M. Ravel

Pavane pour une infante defunte
Prelude (1913)
Le Tombeau de Couperin

F. Chopin

24 Preludes, Op.28

샤를 리샤르 - 아틀랭 피아노 리사이틀

2022. 11. 18^{FRI} 7:30^{PM} |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티켓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THE BRIDGE COMPANY 02)6094-1001

SHOSTAKOVICH SYMPHONY No.4



필하모니코리아 창단연주회

객원지휘 지중배 | 피아노 샬리 리샤르-아몰랭

M. Ravel | D. Shostakovich

2022. 11. 25 FRI 8:0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티켓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THE BRIDGE COMPANY 02)6094-1001

HYEJI BAK PERCUSSION RECITAL

HYEJI BAK

박혜지 타악기 리사이틀

2022. 11. 26^{SAT} 8:00^{PM} |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티켓 전석 3만원 문의 THE BRIDGE COMPANY 02)6094-1001

문지영 피아노 리사이틀

THE BRIDGE COMPANY

Chloe Jiyeong Mun

스크리아빈에서 슈만,
다시 스크리아빈

2022. 11. 27. SUN 5PM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후원 (재)설원량문화재단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예매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인터파크 티켓

문의 02-6094-1001

예술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더브릿지컴퍼니 연주자 후원 안내

더브릿지컴퍼니와 동행하는 아티스트들이 본인의 예술에 집중하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길이 남을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브릿지컴퍼니와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후원인이 되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정기후원

후원금액	월 1만원 이상
출금	매월 25일 약정 금액 / CMS 자동이체

- ▶ 후원해주신 금액은 법정기부금 단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거쳐 더브릿지컴퍼니로 전달되며, 모든 금액은 투명하게 운용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정산 및 보고됩니다.
- ▶ 일시후원 혹은 단체 차원(법인 등)의 후원은 후원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후원 기부금 사용

- 더브릿지컴퍼니 아티스트 후원
- 음반제작비
- 연습실대관료
- 국내외항공비
- 홍보비용
- 해외체류비
- 각종 제반비용 등

정기후원 신청방법

전화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 예우

공동혜택

 특별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 등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아티스트 지정후원 가능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무료 증정
 후원자 감사 문자 발송	 더브릿지컴퍼니 뉴스레터 발송	 후원금액별 예우 제공

* 정기후원을 시작하고 3개월 후 회원자격(1년)이 부여되며, 후원 중단 시 회원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1만원 이상	공동 혜택
3만원 이상	감사선물전달 더브릿지컴퍼니 기획공연 선예매 서비스 제공
5만원 이상	후원금액 3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제공(R석/1매) 기획공연 할인률 20%(R,S석/최대 2매)
10만원 이상	후원금액 5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 제공(R석/2매) 기획공연 할인률 30%(R,S석/최대 2매)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내 후원자 명단 기재
30만원 이상	후원금액 10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제공(R석/4매) 후원자 이름을 담은 연주자 감사메시지 전달 더브릿지컴퍼니 웹사이트 내 후원자 명단 기재
50만원 이상	후원금액 30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제공(R석/4매) 기획공연 리허설 초대 (연 1회, 인원한정) 후원인들을 위한 연주회 및 리셉션 초청 (연 1회, 동반 1인 한정)

STAFF

대표	윤동진
기획	윤진성, 민다빈, 조정하, 이정현
디자인	장보화
홍보	인더케이브 견민정



www.thebridgekr.com



[The Bridge Company](#)



[thebridge_classics](#)